

6·25전쟁기 심리전 운용실태 분석

金 種 淑

(군사편찬연구소 선임연구원)

1. 머 리 말
2. 심리전의 활성화 원인
3. 심리전의 전술적 운용
4. 심리전 운용실태 분석
5. 결 론

1. 머 리 말

현대전은 가공할 첨단 무기체계에 의한 정보·과학전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 현대전의 전쟁양상은 비정규전 형태의 특수전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현대전에서 이와 같은 전쟁양상의 변화는 전쟁의 주체인 인간의 마음을 다스리는 전쟁, 즉 심리전의 기능이 중시되고 있다는 증거이며, 그 심리전을 구현하는 ‘억제전략과 ‘적의 중심파괴’라는 전략이 각광을 받게 된 것이다.¹⁾

이처럼 현대전에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심리전에 대하여 클라우제비

츠(Carl von Clausewitz)는 “전쟁목적을 위해 비폭력 수단인 언어를 사용하는 전쟁”이라고 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보면 심리전은 “비폭력적 수단인 언어를 이용하는 또 다른 형태의 전쟁”인 것이다.²⁾ 심리전의 대가인 라인버거(Paul M. A. Linebarger)는 협의의 의미로서 “심리전은 적에 대해서 사용하는 심리적 무기의 보충이다. 그것은 적의 사기를 분쇄하는 새로운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전투에 임하는 적의 의지와 능력을 감소시키려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³⁾ 따라서 심리전은 무력투쟁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열전(熱戰)상황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무력수단의 이용이 제한되는 냉전(冷戰)과 같은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활성화되는 경향이 있다.

6·25전쟁은 전 세계적 차원의 냉전체제가 구축됨에 따라 역사상 어느 전쟁보다 이념적 성격이 강조되면서 유엔군과 공산군은 심리전과 선전전에 치중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6·25전쟁이 무력투쟁의 전쟁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심리전장이었음을 웅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6·25전쟁에서 심리전이 차지했던 중요성에 비해 이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는 매우 미흡하다. 6·25전쟁기의 심리전과 관련된 연구는 심리전에 관계했던 미국의 군인, 학자들의 관찰기 또는 단편적인 연구논문에 불과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학계뿐만 아니라 군내에서도 한두 편의 논문이 발표된 정도이다.

현재까지 6·25전쟁에 관련한 심리전의 연구 현황을 보면, 미 육군 심리전부의 「한국전쟁의 전술적 심리전」 보고서(39쪽)와 피테(George S. Pettee)의 「한국전쟁에서 미군심리전 운용」⁴⁾은 진단과 확성기를 이용한 전

1) 이재윤, “특수작전의 심리전 이해”(서울: 집문당, 2000, p. 25.

2) Carl von Clausewitz, *On War*, edited and translated by Michael Howard and Peter Paret with Introductory Essays by Peter, Michael Howard and Bernard Brodie; with a Commentary by Bernard Brodie; Index by Rosalie West, p. 612.

3) Paul M. A. Linebarger, “Warfare Psychologically Waged”, in Daniel Lerner(ed), *International Propaganda and Communication*(New York: Arno Press 1972), p. 269.

4) George S. Pettee, “US Psywar operations in the Korean war”(McMair base. Washington: 1951. 1. 23).

술심리전에 대한 단편적인 운용실태와 효과분석이고, 전쟁 중 또는 전쟁 후 발표된 「한국전쟁에서의 심리전」, 「심리전 연구」 등은 미군 심리전에 자문으로 참여한 미국 사회학자들이 심리전의 효과를 분석한다는 차원에서 작성한 일련의 연구물이 일부 공개된 것이다.⁵⁾

심리전의 이론과 실재를 종합적으로 체계화시킨 라인버거(Paul M. A. Linebarger)는 「심리전(Warfare Psychologically)」⁶⁾이란 저서의 부록 “군심리전(Military PsyWar Operations, 1950~1953)”에서 6·25전쟁기 미군의 심리전 조직과 전술심리전 운용실태를 7쪽에 걸쳐 소개하였고, 피즈(Stephen E. Pease)의 「한국전쟁에서의 심리전」⁷⁾은 6·25전쟁시 미 공군 조종사로 참전하여 전쟁기간 동안 유엔군과 공산군 간에 전개되었던 심리전의 운용실태를 소개한 최초의 저술이다.

우리나라에서는 6·25전쟁시 심리전과 관련하여 방선주가 편찬한 「한국전쟁기 뼈라」⁸⁾와 합동참모본부 민사심리전참모부가 극동사령부 심리전처에서 제작한 전단을 모아 편찬한 「6·25 전단지」⁹⁾이 있고, 황근의 「설득커뮤니케이션 차원에서 본 한국전쟁 심리전 평가」¹⁰⁾와 정용욱이 최근 발표한 논문 「6·25전쟁기 미군의 뼈라 심리전과 냉전 이데올로기」¹¹⁾는 6·25전쟁기 심리전을 비교적 심도 있게 분석한 논문으로 평가된다. 김기도¹²⁾와 정

-
- 5) “*Psychological warfare in Korea 1950~1953*”, *Public Opinion Quarterly* Vol. 15, issue 1(spring, 1951): John W. Riley, Jr., Leonard S. Cottrell, “Research for Psychological warfare”, *Public Opinion Quarterly*, Vol. 21, issue 1(spring, 1957).
- 6) Paul M. A. Linebarger, “*Warfare Psychologically*”(Washington Combat Forces Press, 1954).
- 7) Stephen E. Pease. 1992, *PSYWAR: “Psychological warfare in Korea 1950~1953”*, Stackpole Books, Harrisburg, PA
- 8) 방선주 편, “한국전쟁기 뼈라”(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00).
- 9) 합동참모본부 민사심리전 참모부, “6·25전쟁기 전단지”, 2002.
- 10) 황 근, “설득커뮤니케이션 차원에서 본 한국전쟁 심리전 평가”(국방군사연구소, 군사 제 30호, 1995).
- 11) 정용욱, “6·25전쟁기 미군의 뼈라 심리전과 냉전 이데올로기”(역사와 현실 제51호, 20004).

윤무¹³⁾의 심리전에 관한 저서는 일반이론과 정치선전의 본질적 특성에 관한 논의로서 6·25전쟁 심리전에 관해서는 단편적으로 소개하였고, 이윤규¹⁴⁾의 「북한의 대남심리전 연구」는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대남전단을 분석하면서 6·25전쟁기의 심리전을 간략하게 다룬 현역군인의 박사학위논문이다.

본 논제에서는 피즈의 「한국전쟁의 심리전」, 피테의 「한국전쟁에서 미군 심리전 운용」, 방선주가 편찬한 「한국전쟁기의 뼈라」를 분석한 정용욱과 한국전쟁의 심리전을 평가한 황근의 논문이 주요 자료원이 되었고, 기타 관련저서와 논문을 다수 참고하였다.

연구범위는 심리전이 정형이 없다는 특징 때문에 시행에 어려움이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영역도 대상, 기능, 기간에 따라 광범위하다. 이번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6·25전쟁기간으로 한정하였고, 수행매체는 주로 활용된 전단, 라디오, 확성기로 제한하였다. 연구방법은 심리전이 인간의 심리적 묘사이므로 면접이나 심리실험을 통해서 분석해야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6·25전쟁 당시 심리전 운용실태를 통해 나타난 결과물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논제의 운용실태에 대한 내용분석은 심리전의 기본원리인 자극(S) → 대상(O) → 반응(R)에 적용된 5개 요소, 즉, 누가(communicator), 무엇을(message), 어떤 방법을 통해서(in which channel), 누구에게(receiver), 어떠한 효과(with what effect)를 얻는가? 라는 설득커뮤니케이션 과정 모델을 이용하였다. 또한 연구의 목적은 심리전 원리에 입각하여 6·25전쟁기 심리전의 주체와 조직, 정책과 메시지, 매체를 통해 수행한 심리전 운용 실태를 분석하여 양측의 장단점을 규명하고, 심리전 전개양상과 특징을 도출하여 미래전에서의 심리전 발전을 도모하는 데 두었다.

12) 김기도, “정치선전과 심리전략”(서울:나남, 1989).

13) 정윤무, “현대정치와 심리전략”(서울:박영사, 1974).

14) 이윤규, “북한의 대남 심리전 연구”(경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2. 심리전의 활성화 원인

6·25전쟁에서 심리전이 활발하게 전개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전쟁의 독특한 특성과 양상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전쟁의 원인 면에서 본다면, 한반도의 내부적 요인과 국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발생한 국제전적 내전이였다.¹⁵⁾ 반면에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6·25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을 정점으로 한 동서 양대 진영의 갈등구조였던 냉전(Cold War)체제하에서 분출된 최초의 전쟁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6·25전쟁은 이념을 달리하는 북한정권의 기습남침에 의해 최초로 내전(Civil War)의 성격이 강한 민족전쟁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지적했듯이 당시 이데올로기적 갈등구조를 지향하고 있던 미·소를 축으로 한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의 양대 세력의 개입은 결국 25개국의 전투 및 지원부대가 참전하는 국제적 내전(International Civil War)¹⁶⁾ 형태의 세계전쟁으로 변화된 것은 분명하다.¹⁷⁾

이러한 성격을 지닌 6·25전쟁은 초기 북한군의 기습남침과 유엔군의 반격, 중국군의 개입과정에서 전면전(全面戰)이며, 제한전(制限戰)으로 변화되었고, 중반 이후에는 국제적 내전형태의 세계전쟁이었지만 제한전의 양상을 띠었다. 6·25전쟁을 주도한 미국은 전쟁이 세계대전으로 확대되어서는

15) 육군본부, “6·25전쟁의 실패사례와 교훈”(육군인쇄창, 2004), p. 451.

16) 국제적 내전이라는 용어는 1960년대 초부터 일본학자들에 의해 사용되다가, 러시아 문서 공개 이후 국제적 내전론은 미국학자들에 의해 수용되고 있다(William Stueck, *The Korea War: An International Histor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1995, pp. 12~13; 김영호, “한국전쟁의 해석과 연구동향”, 『탈냉전 시대 한국전쟁의 새로운 조명』 서울 백산서당, 2000, p. 96).

17) Okonogi Masao, “The Democratic Roots of the Korean War”, in Yonosuke Nagia and Akira Iriye eds, *The Origins of the War in Asia*(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7), p. 300.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고, 이것은 전쟁을 제한전으로 이끌게 된 요인이었다. 따라서 유엔군의 작전은 정치적 이유로 엄격히 통제되었으며, 휴전협상 진행과정에서는 작전이 더욱 제한되었다.¹⁸⁾ 그러나 전쟁 당사국인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6·25전쟁은 국가의 전 역량을 동원한 총력전(總力戰)이었으며, 또한 열전(熱戰)이었다. 특히 심리전이 열전의 상황보다 냉전 기간에 보다 활성화된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휴전협상과 동시에 진행된 2년 여의 진지전(陣地戰)¹⁹⁾ 혹은 고지쟁탈전 기간 동안은 피아간에 심리전이 왕성하게 수행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6·25전쟁의 특성과 양상은 심리전이 활발하게 전개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이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6·25전쟁은 미·소를 중심으로 한 동서냉전시 이데올로기의 갈등을 반영하는 이념전쟁의 양상이었고, 군사적 차원의 전쟁이었다기보다 정치적 판단에 의해 수행된 전쟁이었다. 6·25전쟁이 발발한 시기는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시점에서 세계가 새로운 질서 확립과 전후복구에 여념이 없는 시기를 이용하여 공산군은 아시아 북반부에 위치한 분단된 한반도에서 국지적인 침략행위를 감행한 것이다. 이에 자유진영 국가들이 세계평화를 파괴하는 중대한 도발로 인식을 같이하여 유엔을 중심으로 응징에 나선 것이다.²⁰⁾

이러한 이념전쟁²¹⁾ 양상은 매스미디어의 발달과 그 궤도를 같이 하는 데

1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1986. 11, p. 36.

19) 6·25전쟁은 1951년 7월 10일 휴전협상이 시작되면서 “일면전쟁, 일면협상”이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1953년 7월 27일까지 피아간에 진지전 또는 고지쟁탈전 양상으로 전개되었다(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1986. 11, p. 337).

20)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pp. 35~36.

21) 이념전쟁이 최초로 시작된 것은 흔히 나폴레옹 전쟁시기였다고 한다. 즉 나폴레옹은 자신의 전쟁을 정당화하고 상대방 국민들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하여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정치이념을 표방하는 이념전을 구사하였던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나폴레옹은 최초의 체계적인 심리전 수행자였다고 평가되기도 한다(장을병, “정치 커뮤니케이션”, 서울: 태양출판사, 1979, p. 135).

그것은 선전이 반드시 대중을 상대로 한다는 본질에서 기인한다. 그러므로 매스미디어가 대중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특성은 효과적인 선전전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에 이념전쟁의 발전을 가속화시키게 되었던 것이다.

특히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가 대립하는 전쟁에서 무엇보다도 전쟁의 이념적 명분이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6·25전쟁에서 심리전은 무력투쟁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6·25전쟁은 전체적으로 제한전의 양상이었고, 휴전협상 기간에는 고지쟁탈전이었던 점이다. 제한전이란 전쟁이 일어나는 전장의 범위나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제한되는 전쟁을 말한다. 즉, 제한전은 여러 이유로 인해 전쟁의 범위가 확대되는 것을 제한하는 전쟁이다.²²⁾ 이러한 의미에서 6·25전쟁은 제한전의 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그 결과 무력적 투쟁과 비폭력적인 심리전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었던 것이다. 특히 1951년 이후 돌입한 고지쟁탈전 양상은 심리전을 더욱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던 것이다.

셋째, 6·25전쟁을 참전국가로 본다면, 미국 등 16개국이 작전에 참가했고, 총 25개국이 지원했지만 기본적으로 동일민족간의 전쟁이었다는 점에서 심리전을 활성화하게 한 또 하나의 원인이라고 본다. 심리전을 역사적으로 보면 이민족간의 전쟁에서는 심리전의 수행이 매우 어렵고 큰 효과를 기대하기도 힘들었다. 그러나 동일민족간의 전쟁은 언어적·문화적 장벽이 거의 없는 관계로 심리전 수행이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이와 같이 6·25전쟁은 전쟁의 특성과 양상에 따라 심리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되었으며, 심리전의 효과 또한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6·25전쟁은 심리전을 심층적으로

22) 황 근, “뉴미디어 시대의 방송심리전에 관한 연구”(한국방송학회, 방송학연구, 1993), pp. 263~269.

연구하는 데 매우 적합한 사례로 볼 수 있다.

3. 심리전의 전술적 운용

6·25전쟁기에 전개된 심리전은 전쟁초기와 휴전기에는 전략(戰略)심리전이, 무력투쟁기인 전쟁 중에는 전술(戰術)심리전이, 북한과 남한의 점령기에는 상호 선무심리전(宣撫心理戰)이 운용되었다. 이에 따라 6·25전쟁기에는 전쟁 상황변화에 맞추어 라디오를 통한 전략심리전과 전단 및 확성기를 이용한 전술심리전이 수행되었다. 이렇게 수행된 심리전의 전술적 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쟁의 주체를 우선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6·25전쟁은 동족간의 전쟁이었지만 전쟁주체가 다양하다. 예컨대, 유엔군, 한국군, 북한군, 중공군 등 심리전 지휘부가 단일 또는 연합 형태로 조직·수행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하여 실태를 분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본 연구에서는 아군과 적군의 개념에서 미국이 주축이 된 유엔군과 북한과 중국을 공산군측으로 구분하고, 양측의 심리전 수행과정에서 주체(조직포함)가 어떤 정책과 주제를 가지고 어떤 대상에게 무슨 매체를 선택하여 운용하였고, 어느 정도 효과를 얻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유엔군의 심리전 운용실태

1) 주체와 조직

6·25전쟁에서 미군이 심리전을 신속하게 전투에 이용하게 된 것은 1950년 초에 트루먼 대통령의 지시로 심리전을 위한 국가정책을 수립하기 위하

여 심리전전략위원회(PSB: Psychological Strategy Board)를 설립했기 때문이다. 미 육군성은 당시 야전심리작전을 위한 새로운 부대 편성개념을 승인하고, 새로운 복안으로 심리전부대를 창설하였는데 그것은 전략선전 지원부대와 전술선전 지원부대였다. 미 8군 극동군총사령부 G-3 심리전처(PsyWar Division)는 라디오와 전단을 제작 살포할 수 있게 편성되어²³⁾ 군사작전을 지원하는 전략심리전을 담당하다가 선무중대가 창설되면서 전술심리전도 담당하게 되었다. 이들 확성기 및 전단중대의 임무는 야전에서 전투부대의 전술선전 지원에 목적을 두고 군단의 작전통제 하에 운영되었다. 라디오는 전략 및 선무매체로 통합 운영되었으며, 전쟁초기에는 미국의 정책에 대한 방송이었고 점차 유엔군사령부의 방송으로 전환하였다.²⁴⁾

전쟁 초기 남한에서 심리전 활동을 주도한 것은 전쟁 이전부터 존재하였던 USIE KOREA(United States Information and Education Korea)이었다. 이 조직은 본격적인 심리전 조직이 아니어서 심리전 전문가나 장비를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공격심리전보다 적의 심리전을 방어하는 방어심리전, 즉 북한의 심리전에 대한 유언비어와 공황(panic)현상을 예방하는 데 치중할 수밖에 없었다.²⁵⁾ 유엔군의 심리전 조직은 1950년 9월 19일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한 이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완성되었다. 당시 미군의 심리전 조직은 미 육군성 예하 4개 부서에서 분담하여 담당하였다. 6·25전쟁시 심리전을 주도한 주무부서는 G-2 심리전처이며, 특별히 6·25 전쟁을 위하여 창설된 심리전반(PWS: PsyWar Section)은 1953년 6월 조직되어 심리전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1953년에는 미 8군 극동사령부에 그

23) 부대편성은 본부와 본부중대, 전단체작중대, 기동라디오 및 전단중대로 편성되었다가 1953년에 선무중대가 추가로 창설되었다.

24) 안희준, “주요 전쟁사에 나타난 심리전 사례연구”(합동참모본부 연구보고서, 1997), p. 62.

25) Rolf Jacoby, “USIE Korea-an Experiment in Wartime Operations”, in William Daugherty and Morris Janowitz(eds), *A Psychological Warfare*(Baltimore: The Johns Hopkins Press, 1964), pp. 225~227.

임무를 인계하였다.²⁶⁾

심리전반은 유엔군사령부의 심리전 활동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전략·전술적 심리전을 지원하기 위한 야전 심리전부대라고 할 수 있다. 이 부대는 4개의 직접통제 중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간접적으로 점령지에서 강화활동을 지원하는 중대를 별도로 통제하였다. 4개 중대는 본부중대, 전단을 생산하여 배포하는 전단생산중대, 이동라디오방송중대, 실제 심리전 활동을 수행하는 확성기 및 전단중대였다. 또한 확성기 및 전단중대는 선전소대, 인쇄매체소대, 확성기소대로 구성되어 본부중대, 전단생산중대, 이동라디오중대의 통제를 받도록 편성되었다.²⁷⁾

한편, 한국군의 심리전 조직은 1950년 7월 대전에서부터 국방부 정훈국이 국가총력전을 수행하는 가장 중추적인 활동을 하는 핵심기구로서의 틀을 잡으면서 계몽선전에 앞장을 섰으며, 가두방송으로 피난민들을 통제하는데 기여하였다. 1950년 9월 미 제1기갑사단이 한국전선에 참가하면서 정훈국 소속으로 활동해 왔던 학생요원들을 포함한 대적 선전대가 최초로 대구에서 발족하였다. 이 대적 선전대는 확성기 장비를 구비하여 낙동강 전선의 전면에 투입되었다. 한국군의 심리전은 서울을 탈환하고 파죽지세로 북진공격을 시작했던 시기부터였는데, 당시 국군은 수복지구를 갖게 되면서 주민들에 대한 선무심리전을 위해 전담부대인 제772부대와 제773부대를 창설하였다. 중국군 개입 이후부터 대적 선전대는 국방부 병무감실 소속으로 전환되어 미 제1선전중대와 연합작전을 전개하였다.

2) 정책 및 주제

6·25전쟁기 심리전 정책은 주로 전략심리전 매체인 라디오 및 전술심리

26) Paul M. A. Linebarger, *“Psychological Warfare”*(Washington: Combat Force Press, 1954), p. 301.

27) 황 근, “설득커뮤니케이션 차원에서 본 한국전쟁 심리전 평가”(국방군사연구소, 군사 제 30호, 1995). p. 180.

전의 전단과 확장기 운용에 대한 기본지침이었다. 당시 육군장관인 페이스(Frank Pace)는 심리작전을 양적인 면보다는 질적인 면에 중심을 두고 6·25전쟁에서 심리전 정책을 한마디로 “적을 전단(종이)에 묻어라”고 지침을 하달했다. 페이스 장관은 야전군사령관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해 주는 전술전단 및 확장기 작전에 우선순위를 부여했으며, 한국내 적군뿐만 아니라 만주에 있는 중국군에게도 도달할 수 있는 강력한 라디오 방송으로 확장시킬 것을 지시하였다.²⁸⁾

극동사령부의 심리전반은 전략·전술심리전 정책과 전술심리전부대의 야전 전개를 통제하였고, 라디오 방송은 일본시설을 이용하여 한국으로 메시지를 전파하였다. 당시 심리작전을 위한 심리전 정책은 첫째, 북한군 또는 중국군의 저항과 역량을 약화시킨다. 둘째, 북한 주민들에게 전쟁의 진실을 알린다. 셋째, 한국군과 시민들의 사기를 증진한다는 세 가지 군사목표에 의해 결정되었다. 공산군측을 상대로 심리전 작전이 계획될 때는 네 가지 주제가 강조되었다. 첫째, 항복하면 음식, 인간대우, 의료 보호, 그리고 전쟁위험에 대한 피난처 등을 보장받는다. 둘째, 항복하면 유엔군이 전쟁을 승리한 후 살아서 당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셋째, 전투력면에서 유엔군이 우세하기 때문에 당신들은 패배할 수밖에 없다. 넷째, 살아있는 애국자가 죽은 애국자보다 낫다.

이와는 별도로 수복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유엔군의 선무심리전에 사용된 주제는 한국에서 왜 그들이 싸워야 하는지 모르는 중국군과 북한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기 위해 의도되었다. 그 주제들은 공산주의 병사와 그들의 통제하에 있는 주민들에게 유엔군에 의해 해방되어 적절한 국가기관이 설립되기 전까지 진실을 알리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²⁹⁾

이와 같이 유엔군의 심리전 주제는 전략적이라기보다 전술적인 측면이

28) Stephen E. Pease “Psychological Warfare in Korea 1950~1953”(국군심리전단 편역, 2000), p. 14.

29) Stephen E. Pease, 위의 책, pp. 14~17.

강조되었다. 그 이유는 유엔군측 심리전이 한국 상황에 익숙하지 않아 주로 군사작전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엔군의 심리전은 주로 전장에서 적의 사기를 저하시키거나 저항의지를 약화시키는 데 치중하였다.³⁰⁾

3) 심리전 매체

가. 전 단

6·25전쟁 동안 유엔군의 심리전 활동은 대부분 전단을 이용해 수행되었다. 유엔군은 1950년부터 1953년까지 북한군과 주민들에게 25억장 이상의 전단을 살포하였다. 최고 절정기의 제작량은 매주 2천만장 이상이었고, 전단 및 확성기 중대는 주당 평균 350만장의 전단을 살포하였다.³¹⁾

전쟁 초기 적 지역에 살포된 전단은 적이 투항하면 좋은 대우를 해주겠다는 내용과 항복전단이었다. 1950년 말에 살포된 전단은 새로운 상황에 봉착한 적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내용이었다. 또한 대내심리전 활동으로 아군지역에 살포된 전단은 유엔 활동에 대한 정보 또는 인천상륙 등과 관련된 소식이었고, 유엔의 지원이 잘 이루어질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심리전 처에서는 북한군을 대상으로 22개 전단을 제작하였는데 그 중 5종은 항복을 권유하는 것이었고, 17종은 투항자에게 좋은 대우를 해 주겠다는 주제였다.³²⁾

심리전 메시지의 목표는 일반 북한 주민 혹은 북한군과 중국군의 통제 하에 있는 주민들에게 두었다. 투항한 병사들 중 30% 이상이 도로표시와 단순한 지시만을 읽을 수 있는 문맹인들이었다. 따라서 유엔군 심리전 전단은 상징물, 그림, 만화로 그려지는 단순한 문구를 사용하였다.

30) 황 근, 앞의 책, p. 185.

31) Stephen E. Pease, 앞의 책, p. 30.

32) George S. Pettee, 앞의 책, p. 17.

전단의 종류는 지시형, 정보주입형, 회유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지시형과 정보주입형은 전략, 전술, 선무작전에서 활용되었고, 회유형 전단은 전략과 전술상황에서만 이용하였다.³³⁾ 신문전단은 가장 효과적인 정보주입형 전단이다. 신빙성 있는 뉴스는 전쟁시기에 얻기 힘든 정보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신문전단은 남북 서로에게 환영을 받았다. 유엔군은 패러슈트 뉴스, 자유세계 뉴스, 자유세계 주간 뉴스, 자유한국 그리고 재건뉴스 등 다섯 가지 신문전단을 제작하였다.

유엔군이 수행한 전단심리전 중에서 효과적인 사례를 보면, 첫째, 가장 유명한 전단 중 하나는 ‘안전보장증명서’였다. 이 전단은 적군이 눈에 잘 띄게 한쪽 면을 돈(지폐)으로 인쇄하였다. 이것은 북한군과 중국군 지역에 대량으로 살포되었고, 공산군이 만약 이 증명서를 하나라도 가지고 있으면 처형을 한다고 위협했지만 수천 명이 그 전단을 가지고 다녔다. 전단의 내용은 한국어, 중국어, 영어로 인쇄되었다. 공산군들은 안전보장증명서를 사용하기 전에 몇 주(週) 동안 군복 안에 숨기고 다녔고, 이 전단은 만기일자가 없었다. 항복을 하면 식사가 주어졌고, 적으로부터 두려움도 사라졌다.³⁴⁾

유엔군은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하면서 이와 같은 심리전 활동은 6·25전쟁 기간 내에 전술심리전에서 기선을 장악하였으며, 1953년 7월까지 심리전의 새로운 원칙과 기술을 발전시켰다.³⁵⁾

둘째, 전단심리전 운용에서 가장 큰 성과는 ‘귀순조종사 현상금’ 심리전이였다. 이 심리전 계획은 1953년 3월 20일 미 합동참모본부의 지시에 의해 도쿄에 위치한 극동사령부의 합동심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한국에 있는 유엔군 최고 작전책임자인 클라크(M. W. Clark) 장군이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다. ‘몰라작전(Operation Moolah)’이라고 명명된³⁶⁾ 이 심리전은 남

33) George. S. Pettee, 앞의 책, pp. 35~36.

34) George. S. Pettee, 위의 책, p. 56.

35) 합동참모본부, “심리작전의 이해와 실제”, 2001, pp. 113~114.

36) M. W. Clark, 이지영 역, “한국전쟁과 심리전”, 1965, pp. 101~109.

한으로 전투 가능한 미그(MIG)기 귀순 조종사에게 현상금 5만 달러를 제공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첫 귀순 조종사에게 추가로 5만 달러를 지급하겠다는 메시지였다. 이러한 심리전을 구상하게 된 배경은 1950년 11월 러시아의 MIG-15 전투기가 출현했고, 당시의 MIG-15기는 유엔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투기 성능을 훨씬 능가하였다.³⁷⁾ 공중전에서 미그기는 F-86 세이버(Sabre)기 보다 더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급강하 시에도 훨씬 우세한 성능을 보이고 있었다.

1953년 4월 ‘몰라작전’(Operation Moolah)은 클라크 장군이 직접 유엔군 라디오 방송을 통해 시작되었다. 이와 동시에 압록강 유역의 공군기지에 수 백 만장의 전단을 살포하였고, 5월 10일과 18일에는 50만장의 전단을 신의주와 의주의 공군기지에 뿌려졌다. 그 전단 내용은 “남한으로 비행 가능한 최신예 제트비행기를 가져오는 조종사에게 5만 달러를 주겠습니다. 자유세계로 그러한 제트비행기를 처음으로 가져오는 최초의 조종사에게는 그 용기를 높이 사서 5만 달러를 추가로 더 지급하겠습니다”라고 작성되었다. ‘몰라작전’(Operation Moolah)이 시작된 직후 미그기의 비행횟수는 현저히 떨어졌고, 8일간은 출격이 거의 없었다. 그들은 싸우기를 꺼려했고, 미그기는 전투기량은 미숙하지만 당성이 강한 북한군 조종사들에게만 비행이 허락된 것이다. 이러한 공중전투상황에서 미 공군 세이버전투기(F-86)는 단지 3대를 잃었지만 미그기는 무려 165대나 격추되었다. 55대 1의 비율이었다. 이렇듯 6·25전쟁에 있어서 유엔군의 심리전은 실질적인 전투무기 이상의 성과를 거둔 것이다.³⁸⁾

휴전협정 이후 1953년 9월 23일 9시 24분에 예상하지도 않은 북한군 노금석 대위가 레이더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미그기를 저공비행하여 김포공

37) 미그기는 남한에 배치되어 있었던 F-51s, 유엔군의 새 기종인 F-80 shooting star, 해군의 F-9F Panther 보다 빠른 전투기였고, 당시 최신 전투기 F-86 세이버(Sabre)를 최초 생산하기 시작했지만 공급이 부족한 상황으로 유엔공군은 여전히 불리한 입장이었다.

38) 김기도, “정치선전과 심리전략”(서울: 나남, 1989), pp. 200~203.

항에 착륙한 것이다. 그는 착륙 직후 정치적 망명을 요구했다. 노대위의 귀순사건은 본인이 5만 달러의 현상금은 알지 못했다고 자백함으로써 Moolah 작전과는 큰 연관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³⁹⁾ Moolah작전은 비록 조종사가 전단이나 방송을 통해 인지하고 귀순해 오지는 않았지만 공중전을 완전히 제압하는 가장 훌륭한 심리전으로 평가되고 있다.⁴⁰⁾

셋째, 중국군의 ‘사상자 현장사진’을 이용한 전단심리전이다. 당시 중국의 강력한 무기 중의 하나가 적군을 위협하는 ‘인해전술’이었다. 그들은 중국군을 최전선에 배치하였는데 심지어는 가공할 만한 유엔 중화기부대 전면에도 배치하였다. 리지웨이(Matthew B. Ridgway) 유엔군사령관은 대량으로 죽어가는 중국군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전단을 만들어 적군병사에게 살포하라고 명령하였다. 이것은 인해전술의 무용함을 강조하고, 적군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효과를 노렸다. 전단에 사용할 사진은 중국군 병사가 대량으로 살상된 처참한 모습이었고, 피범벅이 된 중국군의 시체를 선명하게 보여주었다. 사진 뒷면에는 “터키군의 공격으로 고지에 중공군 시체가 쌓여 있는 광경, 1951년 2월 21일”이라고 기술하였다. 전단 살포 후 유엔군의 전단심리전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중국군 포로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큰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이와 같이 유엔군은 효과적인 전단심리전 활동에 주력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다.

나. 라디오

심리전부는 북한군의 남침 직후, 한국어 라디오 방송을 실시하였다. 유엔사방송(VUNC)은 전쟁발발 4일 후인 1950년 6월 29일 도쿄 스튜디오에서

39) 북한군의 노금석 대위 귀순사건은 유엔군의 현상금 전단심리전 결과로 십만 달러의 상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피테(Petee)에 의해 노대위 사건은 Moolah작전과 무관하게 정치적 망명을 위하여 미그기를 몰고 귀순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미 중앙정보부는 노대위에게 공개적인 보상금 대신에 기술교육연급과 다른 재정적인 보상을 해 주었고, 노대위는 북한공군의 동향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했다.

40) 중앙정보부, ‘심리전’, 1969, p. 215; George. S. Pettee, 앞의 책, pp. 53~54.

1.240, 2.170, 2.635, 3.985KHz의 주파수로 2회에 걸쳐 방송하였다. 이 방송은 1951년 1월까지 동경 라디오 방송국에서 실시되었고, 중계소의 초기 임무는 한국에 지원군이 곧 도착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북한군에게 군대를 철수를 요구하는 내용, 그리고 한국인들에게 유엔군의 현황을 인지시키는 내용이었다.⁴¹⁾

유엔사방송은 KBS 방송시설과 송신기로부터 전파를 수신받아 중계하였다. 부산에서 KBS의 재설립 작업이 착수되었을 때 심리전반은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를 파견했다. 부산중계소 HLKB는 유엔사방송과 KBS로 보내는 미국소리 방송을 중계했다. KBS는 10월 1일 반도호텔에 위치한 즉석 스튜디오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을 하루 8시간 방송하였다.

1950년 10월 2일 미 제1기병사단이 평양방송을 확보했다. 라디오평양은 최신형으로 진지내에 위치해 있었고, 우수한 상태였다. 중계소는 동년 11월 14일까지 유엔 협조하에 후방에서 방송하였다. 1951년 1월 4일 중국군이 남하함에 따라 라디오서울은 폐쇄되었다. 제1라디오 방송 일부가 1월 하순경 미 제8군 심리전반(PWS)에서 육군 제8239부대로 급파되었다. 이들의 임무는 폐쇄된 남한 공중파방송을 다시 복구하는 데 있었으며, 대전, 대구, 부산에 위치한 시설은 복구되고 확장되었다.⁴²⁾ 1953년 7월 1일 유엔군이 서울을 탈환하자 유엔군방송은 자체 송신기를 설치하였다. 제8239부대는 태광고등학교에 인쇄와 방송설비를 설치하였고, KBS 스튜디오 근처 태평로에 기동라디오 장비를 설치하여 1956년까지 사용하였다.

유엔군방송에서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시 심리전 주제는 다음 사항이 강조되었다. 북한의 불법적인 행위, 남과 북은 한 형제, 실제적인 적은 중국과 소련, 공산주의는 절대로 승리하지 못함, 인민군과 중국군 선전의 허위 내용 폭로, 왜곡되지 않은 세계 뉴스, 남한과 북한의 생활 차이, 유엔의 평

41) 최용성, “한국전쟁시 미군의 전술심리전 효과분석”(군사편찬연구소, 군사 제50호, 2003), pp. 223~224.

42) Stephen E. Pease, 앞의 책, pp. 67~69.

화 발의 등이었다. 라디오 심리전은 전단내용의 주제를 공유하지만 항상 한국국민과 인민군이 들을 수 있도록 하였다.

다. 확성기

심리전에서 확성기는 전술적 선전을 위해 사용한다. 전술적 의미에 있어서 적에게 저항은 무의미한 것으로서 죽음과 고전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귀순, 투항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 등을 알리고 설득하여 때때로 좋은 성과를 얻어왔다.⁴³⁾

확성기는 적시에 특정대상에 맞게 제작된 메시지를 전장에서 근접전투 지원에 이용한다. 6·25전쟁 초기에는 확성기를 운용할 적당한 인원과 조직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다. 6·25전쟁이 발발하기 전, 전술심리전부대인 전술정보파견대는 20명 규모로 미국 켄사스 릴리(Kansas Riley)에 위치하였다. 이 파견대는 동년 9월 15일 제1확성기 및 전단중대⁴⁴⁾로 개칭되면서 장교 4명과 병 20명으로 시애틀에서 창설되어 한국으로 이동하였다.⁴⁵⁾

6·25전쟁에서 확성기 운용은 항공기에 탑재하여 전장의 적군에게 직접 항복을 권유하거나 다른 심리전 메시지를 방송하는 방법과 지프차와 전차에 확성기를 탑재하여 전술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확성기 이점은 전장에서 적에게 큰 소리로 메시지를 전하고 향수어린 음악을 들려줄 수 있으며, 중장비와 전차의 이동도 감출 수 있었다.

지상 확성기는 1950년 9월과 10월에 제1기병사단에서 많이 사용하였고, 제25사단 또는 인접부대에도 대여하여 사용하였다. 지상 확성기 방송에 대한 제8군 효과분석에 의하면, 10월 중에 확성기 방송으로 75명의 포로를 획득하였고, 제1기병사단은 9월 22일부터 10월 9일까지 무려 418명을 항복

43) 합동참모본부, “심리작전의 이해와 실제”, 2001, pp. 127~128.

44) 동 중대는 1950년 10월 15일 부산에 도착하였고, 장교 6명, 병 99명, 인체기 3대 스피커 12개, 차량 27대로 재편성되었다. 이 중대는 미 제8군 정보처의 작전통제와 배속부대장의 행정적인 통제를 받았다.

45) Jack K. Norris, “전술심리전”(미 육군 전쟁대학, 1954), p. 15.

시켰다. 이 보고서는 1950년말까지 유엔군의 확성기 1개당 평균 300명 정도를 항복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상 확성기는 전선에 노출되어 있어 적의 화력에 매우 취약한 단점을 갖고 있었다.⁴⁶⁾

공중 확성기 운용은 확성기를 탑재한 C-47 항공기 1대는 제8군 지역에서 1대는 제10군단 지역에서 운용되었다. 공중 확성기를 운용한 전술심리전 사례를 보면, 1950년 10월 F-51 전투기의 엄호 하에 확성기를 탑재한 C-47 항공기가 병력을 신고 평양에서 20마일 떨어진 안주로 향하고 있는 적 트럭 2대를 발견하였다. 이군은 확성기를 통해 “만약 당신들이 방향을 돌려 남쪽으로 향하지 않을 시는 F-51전투기가 폭격 하겠다”라고 경고하였다. 적 들은 즉시 남쪽으로 방향을 돌렸고, 은폐하고 있던 적 300명과 차량들이 합류하였다.⁴⁷⁾ 이러한 방법으로 유엔군은 1950년 9월부터 11월 기간에 북쪽으로 후퇴하는 수백 명의 북한군을 포로로 획득하였다.

6·25전쟁에서 맹위를 떨친 미 제1 대적선전대의 제1확성기 및 전단중대가 수행한 결과는 실로 대단한 것이었다. 1951년 3월 29일 도쿄 발 AP통신이 소개한 사례로 “하늘의 소리는 한국에서 1,800명의 중공군으로 하여금 전투를 포기케 하였다”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AP통신 기사는 미 극동군이 C-47 항공기에 탑재한 확성기 방송으로 1,800명의 공산군이 춘천·인제 전선에서 유엔군측으로 귀순하였다고 밝혔다.⁴⁸⁾

이와 같이 확성기를 이용한 심리전 효과는 예상외의 성과를 거두었다. 항복 메시지는 특히 효과적이었다. 선회하는 C-47 항공기는 항복하는 대규모 공산군 부대에게 이동방향을 제시해 주었고, 항복하지 않으면 폭격한다는 사실을 알렸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로 6·25전쟁 기간 중 300개 이상의 공산군부대가 수대의 군수트럭과 함께 항복해 왔던 것이다.

46) 최용성, 앞의 책, p. 242.

47) K. K. Hansen, “Psywar in Korea,” pp. 93~94.

48) 합동참모본부, 앞의 책, 2001, p. 129.

(2) 공산군의 심리전 운용실태

공산군측 심리전은 자료 확보의 한계로 인하여 그들이 수행한 심리전을 유엔군측과 우리나라의 자료에 의존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운용실태를 연구하는 데는 미흡할 것으로 판단된다.

6·25전쟁시 북한은 ‘적군와해공작사업’에 따라 공산주의 국가의 전형적인 심리전을 구사하였다. 공산주의 조직과 정책은 모든 면에 걸쳐 사전에 계획된 조선인민군 총사령부 정치국의 지시를 받았다. 공산주의자들은 상징 조작의 수법으로 인간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려 했고, 그것을 극단적으로 중요시하여 서구세계에서는 거의 그 사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였다. 그것은 공산군이 선전을 얼마나 중요시 했는가를 증명해 주고 있다.⁴⁹⁾

1) 주체와 조직

북한군과 중국군은 각각 조선인민군총사령부 정치국과 중국인민지원군 총사령부가 적군와해공작사업(적공사업)⁵⁰⁾을 총괄하였다. 북한군은 군단, 사단, 여단에 적공지도원을 배치하였고, 연대와 대대에는 선전원이 적공사업을 겸했으며, 소대에서는 소대장의 지휘 아래 2~3명의 적공조가 조직되었다.⁵¹⁾ 이러한 심리전의 조직적인 체계는 다음과 같은 기본전략에 따라 수행되었다.

첫째, 공산주의 활동과 정책을 수행하던 간부는 소련의 지원을 조직적으로 받고 있었던 데, 마을을 지배하고자 하는 공산주의자들의 집념은 서방 세계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나치 이상의 것이었다.

49) William E. Daugherty(Compiler), "A Psychological Warfare Casebook"(Baltimore: Johns Hopkins Press, 1958), chap, 8 참조.

50) 6·25전쟁시 북한의 적군와해공작사업은 ‘적공사업’이란 명칭으로 사용되었으며, 이는 미군의 심리전에 해당하는 용어이다.

51) 방선주, 앞의 책, ii 쪽.

둘째, 선전의 목표는 장기적 목표와 합치되어야 했고, 일시적 “인기획득”을 목표로 해서 장기적 목표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노력했다. 그들의 목표는 한국인의 태도와 사상을 공산주의 전략의 장기적 목표와 합치시키려고 노력했고 단기적인 목표에 중점을 두지 않았다.⁵²⁾

이와 같이 기본전략에 입각한 공산군측의 심리전 조직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전시에 모든 공산당 조직과 정책들은 심리전 지원 업무와 보조를 맞추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이미 사회주의 혁명과 나치의 선전전략을 통하여 체계화되었으며, 북한군의 선전조직은 한국의 상황에 맞도록 일부 변형된 것이다. 둘째, 모든 선전활동은 언제나 장기적인 목표에 맞게 운용되었으며, 단기적인 대중성을 위해 장기적인 목표가 변경되는 경우는 없다. 따라서 북한의 심리전은 단순한 주제가 지속적으로 반복되었으며, 다양한 선전기법들이 하나의 주제에 집중되었다. 이와 같이 6·25전쟁에서 북한의 심리전은 매우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되었으며, 북한의 적공사업 조직이 군대뿐만 아니라 민간 통치기구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2) 정책과 주제

북한의 심리전 매체는 모두 국가가 장악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심리전 전략이 가능하였다. 이는 공산주의 국가에서 언론은 인민을 통제하기 위한 기구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레닌이 주장한 바와 같이 공산주의 사회에서 언론은 선동자이자 선전자이며 당의 조직인 것이다. 그러므로 6·25 전쟁시 북한 심리전에 사용된 매체전략은 곧 북한의 언론철학과 일치하는 것이다. 소위 조국해방전쟁 중에 북한의 언론정책은 바로 조국해방전쟁을 위하여 모든 매체를 통합하여 심리전 매체로 활용한다는 것이다.⁵³⁾ 이러한

52) William E. Daugherty, “A Psychological Warfare Casebook”(New York: Aron Press, 1979), pp. 611~644.

심리전 정책목표 아래 모든 매스미디어는 독점되었으며, 조선인민군최고사령부에 보도부를 만들어 각 전선의 전과를 매일 종합하고, 선전내용은 중앙통신사로 하여금 신문과 방송에 넘겨주는 체제로 전환하였다. 이와 함께 이제까지 분산되어 있던 출판보도기관들을 전시체제로 전환하여 전시 적공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⁵⁴⁾

공산군측 심리전의 주요 주제는 ‘복지사회 프로그램’에 집중되었다.⁵⁵⁾ 그것은 6·25전쟁을 사회주의 혁명의 한 과정으로 간주하는 북한측의 입장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1950년 6월 25일부터 3개월간 남한을 지배하는 동안 공산주의자에 의해 실시된 심리전은 많은 한국인들에게 호응을 얻기 위한 복지사회 프로그램과 관련된 다섯 가지 선전주제를 기초로 확성기, 포스터, 전단 및 강연 등의 선무심리전으로 강화되었고, 여기에는 두 가지의 종합원칙이 전제되었는데 첫째, 면밀히 계획된 심리전 프로그램에 의해 종합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둘째, 선전은 단기목표를 피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복지사회 프로그램과 관련된 다섯 가지 선전주제는 첫째, 여성해방으로 사회주의 체제에서 남녀에게 평등한 지위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둘째, 자본가의 착취로부터 노동자를 해방한다는 것이다. 셋째, 청년프로그램으로 젊은층에게 직업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토지에 대한 재분배였다. 당시 북한의 토지개혁은 남한 농민들에게 행복과 자유를 주며,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실시한다고 주장하였다.⁵⁶⁾ 다섯째, 이데올로기와 민족주의 이념을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심리전 주제들은 일관된 특성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한반도 상황에 적합하게 재구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53) 유재천, “북한언론의 실상”(서울: 민족통일협의회, 1991), pp. 65~68.

54) 북한은 신문인 ‘조선인민군’과 군사정치 종합잡지인 ‘군사지식’의 편찬 발간사업이 강화되었고, 1950년 7월 4일에는 심리전 신문인 ‘승리를 위하여’를 발간·배포하였다.

55) 岩島久夫, “심리전쟁”(동경: 강담사, 1969), pp. 191~196.

56) 북한 토지개혁 정령(政令) 제1조.

3) 심리전 매체

가. 전 단

공산군의 전단 살포량은 유엔군에 비해 훨씬 적었지만 그 종류는 다양하였다. 북한군 전단은 정치적, 이념적, 도덕적 공세 및 투항권유, 사기저하와 전의 상실 유도를 주요 내용으로 적의 전투력 저하와 내부의 와해를 노렸다. 또 다른 특징은 유엔군의 내부 모순을 조장하는 내용이 많았다는 점이다. 군내에서 백인헌병에 의해 폭행당하는 흑인병사의 그림으로 흑·백인종 문제를 조장했는데 이는 미국 백인이 시작한 전쟁에서 흑인이 희생되었다고 설득시키는 심리전이었다. 그들은 대우를 잘 받고 있는 보기 좋은 포로의 그림을 인쇄하여 참호속의 병사보다 포로가 되는 것이 더 낫다고 선전하였다. 이외에도 유엔군내 유색인종 국가와 미군 사이의 분열을 조장하는 내용, 한국군내 장교와 병사 사이의 갈등을 조장하거나 미군의 한국군 멸시를 강조하는 내용 등이었다.⁵⁷⁾

전단의 수송 및 살포는 항공기의 부족으로 전선까지 수송하여 살포하는데 문제가 많았고, 이에 따라 전단의 효과도 적었다. 대부분의 전단은 포탄과 Bedcheck Charlies기⁵⁸⁾를 통해 살포되거나 유엔군에 의해 그들의 진지가 점령되면 전단을 놓고 떠났다. 때로는 중국군 병사가 야음을 틈타 유엔군 초소에 포복해 와서 전단을 놓고 가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나. 라디오

북한의 적공사업은 초기 점령지에 대한 선무심리전에 중점을 두고 서울

57) 정용욱, “6·25전쟁기 미군의 뼈라 심리전과 냉전 이데올로기”(역사와 현실 제51호, 2004), pp. 114~115.

58) Bedcheck Charlies기는 오줌싸개 피터(pete)라고 불렸으며, 속도가 느리지만 외형이 화려하게 생긴 항공기로 유엔군을 오래도록 괴롭혔다. 병사들이 텐트에서 잠자고 있는 한 밤중에 Bedcheck Charlies기가 나타나 선회하게 되면 한바탕 소동을 일으키게 된다. 모든 병사들은 일어나 방호시설로 대피하는데 가끔 폭탄이나 수류탄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 항공기는 심리전 전단도 살포하였으며, 공습은 유엔군에게 큰 위협은 아니었다 (Stephen E. Pease, 앞의 책, pp. 101~102).

에 조선중앙통신사 총지사를 설치하였고, 남한 전 지역 보도물을 독점하여 종합적으로 통제하였다. 그들은 남한의 7개 중앙 일간지를 강제 폐간시킨 후 우리 정부로부터 발행을 정지당한 좌익지인 ‘인민일보’와 ‘해방일보’를 복간시켰으며, 서울 거리 곳곳에 확성기를 대량 설치하여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선전선동을 펼쳤다.

북한군은 남한주민의 태도와 사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조선중앙통신사에 의해 서울 중앙방송국을 장악하고, ‘반동주의자’ 이외에는 절대로 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송과 남한주민에게 동포애를 강조함으로써 진정한 통일의 기회가 왔다고 선전하였으며,⁵⁹⁾ 인민위원회는 총회나 강습회를 통해 북한체계의 우월성과 북한군 활약상, 소련의 역할 등 사상교육을 강화하였다. 북한은 전쟁계획을 위장하기 위해 라디오를 통해 선전을 강화하였다. 1950년 남침하기 일주일전에 라디오평양은 한반도 전역에 걸쳐 총선거 실시를 요구하는 방송을 했고, 며칠 후 북한이 연합군과 남한의 정당에 38선 회담을 제안한다고 발표했다. 실제로는 북한은 남침계획을 진행하면서 거짓으로 라디오방송을 했던 것이다. 전쟁 후반기에도 라디오방송을 통해 세균전 공세를 펼쳤고, 평화회담을 제의하면서 유엔사령부의 휴전협상에 영향을 주었다. 그들은 제공권을 상실했음에도 공군의 승리를 자랑하는 등 라디오평양을 공산주의의 성공을 알리는 선전도구로 활용하였다.

특히 두 명의 조종사 ‘영웅 김’, ‘영웅 웅’을 영웅화하고, 그들과 다른 조종사들이 수 십대의 비행기를 격추시켜 명성을 얻었다고 과대선전을 하였다.⁶⁰⁾ 인민군은 그들의 승전을 과시하고, 유엔군의 전사상자들에게 애도를

59) 합동참모본부, “국방심리전 정책연구서”(제3집), 1999. 12, p. 80.

60) 소련 군사고문단장인 라주바예프는 6·25전쟁 보고서에서 전투에서 영웅적 공훈을 세운 대원들에게 훈장과 메달을 주고 과대선전 하였으며, 불굴의 용맹한 영웅주의에 대한 대내교육을 강화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1951년 1월부터 2월까지 전투에서 전사와 군관 1,000명 이상이 훈장 및 메달을 수여받았고, 그 중 20명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영웅칭호를 받았다(라주바예프, “6·25전쟁 보고서 제2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6, p. 81).

표시하는 등 기만적인 선전전을 전개한 것이다.⁶¹⁾

다. 확성기 및 기타

공산군의 확성기 운용은 북한군보다 중국군에 의해 수행되었다. 중국군은 1952년 전선이 잠잠해진 후에야 확성기 방송을 실시하였다. 그들은 장시간 음악과 강연을 방송하였고, 음악의 대부분은 향수어린 것으로 고향을 생각나게 했으며, 강연을 통해 유엔군의 철수를 주장하면서 부대이동 사항이 비밀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새로 전입·배치된 유엔군을 환영한다고 선전하였다.

중국군은 제공권과 제해권을 상실하면서 주간전투는 유엔군의 화력과 기동력에 밀려 극히 제한하였지만, 초기단계 전투이후 야간전투와 산악전투를 중심으로 유엔군의 취약지를 통해 은밀하게 침투하여 배후를 차단한 후, 징이나 팽과리, 피리 등을 치고 불면서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유엔군은 야간에 중국군의 피리와 팽과리 소리만 들어도 철수해 버리는 중국군 공포증이 생겼다.⁶²⁾

공산군은 어두운 밤에 공격하기를 좋아했으며, 특히 달빛이 없을 때를 선호하였다. 수천 명의 병사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소리치며 비명을 지르고 포탄을 쏘면서 위협적인 심리전을 전개하였다. 중국군은 밤에 노새를 이용해 이동하기를 선호했고, 소수가 이동할 때도 소란스러웠다. 그들은 세력이 약할 때에는 고함 등으로 위장행동을 취했다. 이동 간에도 크게 소리치고, 방울 소리와 휘바람 소리 등으로 많은 부대원이 이동하는 것처럼 위장했다.

이러한 중국군의 심리전으로 한때는 유엔군의 전선유지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것은 공산군 자체의 사기양양에도 큰 역할을 했지만 유엔군 병사들에게 불안과 공포를 안겨주었으며, 때로는 불길한 예감과 전쟁의 비참함을

61) Stephen E. Pease, 앞의 책, pp. 92~93.

62) 인회준, 앞의 책, p. 71.

연상시키게 하여 유엔군의 전의를 상실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라. 세균심리전

6·25전쟁 중반기에 접어들면서 수세에 몰린 북한은 휴전협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유엔군이 세균전(細菌戰)을 준비하고 있다는 공세를 집요하게 펼쳤다.⁶³⁾ 1951년 5월 8일 박헌영 북한외상은 미군이 1950년 12월과 이듬해 1월에 천연두를 전염시켰다고 UN에 공식 항의하였다.⁶⁴⁾ 이것은 소련과 중국신문을 통해서 보도되었다. 그들은 1952년 2월 18일 유엔군이 북한에서 세균전을 수행하고 있다는 공식 비난성명을 발표함으로써 대규모 선전공세의 신호탄을 올렸다. 이에 중국이 합세하여 유엔군을 국제적으로 곤경에 처하게 하였다.⁶⁵⁾

세균전의 공세는 포로로 잡힌 미군들의 고백을 왜곡선전하면서 증폭되었다. 미군포로 중 36명이 세균전에 관해 자백했다. 포로들의 진술은 공산군측의 언론매체를 통해 미국의 세균전 실행증거로 제시되어 미국의 범죄와 6·25전쟁의 추악성을 세계여론에 선전하는 데 좋은 재료가 되었다. 1952년 초에 포로가 된 이녹(Kenneth L. Enoch), 킴(John Quinn), 미 공군 중위 오닐(Floyd B. O'Neal) 등이 2~3개월 후 세균전에 대한 진술을 공개했다. 동년 격추된 미 해병대 소속 조종사였던 블레이(Roy H. Bley) 소령과 쇼블(Frank H. Schwable) 대령은 1953년 1월에 세균탄의 공급·저장·공격에 관해 진술했다.⁶⁶⁾ 특히 공산군측은 해병대 조종사 블레이(Roy H. Bley) 소령과 공군 조종사 오닐(Floyd B. O'Neal) 중위의 자백을 녹

63) John C. Cleus, *Communist Propaganda Techniques*(Frederick A. Praeger: New York, 1964), chap iv. 참조.

64) David Rees, *Korea: The Limited War*(London: Macmillan, 1964), p. 354.

65) 김기도, “정치선전과 심리전략”(서울: 나남, 1989), pp. 181~184.

66) 『조선중앙연감, 1953』, pp. 184~189, Floyd B. O'Neal, “My Testimony”, *People's China*, Nov. 1, 1952, “Why Genn Chiefs Told Secrets”, *London Daily Worker*, Feb. 26, 1953, “Bley's Deposition on Supply of Genn Bombs”, *Korea independence*, Apr 8, 1953, Stephen Endicott and Edward Hageman, op. cit., p. 163.

음·녹화하여 세계 언론을 통해 선전했다. 조종사의 자백 내용은 실로 놀라웠다. 그들의 자백에 의하면 미국은 전세(戰勢)를 만회하기 위하여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였고, 전쟁에서 공산진영의 승리로 유엔군은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묘사하였다.⁶⁷⁾

미국의 유엔대표 그로스는 동년 6월 8일 공인된 국제과학자들로 하여금 세균전 비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하였으나 소련의 거부권에 의해 부결되었다.⁶⁸⁾ 결국 공산군측의 세균전 주장은 한반도에 만연되었던 전염병을 유엔군측에 책임을 전가하여 공산측 자체 내의 전열을 정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여론을 이용하여 당시 진행 중이던 휴전협상에서 유엔군측을 곤경에 몰아넣으려는 심리전의 일환이었던 것이다.⁶⁹⁾ 이에 맞서 유엔군도 핵사용 위협과 인도주의에 입각한 포로송환 심리전으로 휴전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었다. 당시 중앙정보부 딜레스(Allen Dulles) 국장은 휴전협상시 포로교환이 갖는 효과에 대하여 “공산주의에 대항하여 자유세계에 의해 성취된 가장 위대한 심리전의 승리”라고 강조한 것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⁷⁰⁾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6·25전쟁은 이념전쟁으로 전개되었고, 제한전과 진지전의 전쟁양상에 따라 양진영이 전략·전술 및 선무심리전을 전쟁의 시기와 상황에 따라 역사상 어느 전쟁보다도 활발하게 전개했던 것이다.

67) Stephen E. Pease, 앞의 책, pp. 101~102.

68) David Rees, Korea: The Limited War(London: Macmillan, 1964), p. 230.

69)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하)”(서울: 서울인쇄공업협동조합, 1997. 12), p. 235.

70) 정용욱, 앞의 책, p. 130.

4. 심리전 운용실태 분석

심리전 분석의 목적은 요구되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으나 일반적으로 심리전의 기본원리인 자극(S)→대상(O)→반응(R)에 적용된 5개 요소, 예컨대, 누가, 어떤 목적으로, 누구에게, 무슨 방법으로 수행하여, 어떠한 효과를 얻었는가를 분석하여 그 요소별 특성을 고찰함으로써 상대의 의도를 분쇄하고 나아가서 심리전 본래의 목적인 국가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⁷¹⁾ 따라서 본 연구에서 심리전 운용실태의 분석모델은 기본원리를 세분화하여 5개 요소를 심리전 순환과정에 접목시켰다. 즉, 송신자(주체와 조직)–메시지(정책과 주제)–매체(전단, 라디오, 확성기)–수용자(목표대상)–효과(효과분석)의 설득커뮤니케이션 과정의 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 주 체(source)

6·25전쟁시 심리전 운용실태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유엔군과 공산군의 심리전 조직과 주체가 의도하는 목적을 비교해 보면, 몇 가지 차이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유엔군측 심리전 조직은 군사심리전에 그 목적이 제한되어 있어 일반사회의 선전활동과는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지 못한 반면, 공산군측은 군 조직에 한정하지 않고 국가통치기구와 체계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주의 체제가 선동과 선전을 하나의 중요한 통치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이념상의 특성에서 기인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유엔군측이 6·25전쟁시 심리전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한 원인에도 있다고 판단된다.

71) 육군본부, “심리전”, 1989, p. 210.

둘째, 유엔군측의 심리전이 전술적이고 단기적인 목표에 치중되어 있는 반면, 공산군측의 심리전은 다분히 전략적인 의미에서 장기적인 목표에 의해 수행되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각각의 심리전이 서로 장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전쟁의 수행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장단기 목표가 상호 조화되어야 한다는 점은 중요하다. 예컨대, 장기적인 목표에 치중하다 보면 상황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약점이 있는 반면, 단기적인 목표에 치중하게 되면 일관성이 있는 심리전을 전개할 수 없다는 약점을 노출하게 된다. 전시 심리전이 군사작전과 일치되어야 하고, 전술적인 성격이 더욱 강해야 한다는 점은 6·25전쟁에서 사용된 미국의 확장기 심리전의 예를 들 수 있다. 당시 미군의 작전조사국의 한 보고서에서 폭격예고와 항복권유의 심리전은 공격개시 최소한 일주일 이전에 실시되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⁷²⁾

(2) 주 제(message)

심리전의 메시지가 아무리 이상적이라고 하더라도 주체가 요구하는 심리전의 목표와 정책방향, 이용 가능한 정보에 의하여 그 선택의 폭은 제한되게 마련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메시지가 되기 위해서는 상황에 적합해야 한다. 예컨대, 전시상황에서 적군 수용자에 대하여 설득 커뮤니케이션이 그만큼 메시지 선택의 범위를 제한하는 요소가 많을 수밖에 없다.

6·25전쟁 중에 수행된 유엔군과 공산군의 심리전 메시지의 일반적인 특성을 비교해 보면, 유엔군의 심리전 내용은 전략적이라기보다 전술적인 측면이 강하다. 그 이유는 유엔군측이 한국의 상황에 익숙하지 않아 주로 군사작전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엔군의 심리전은 주로 전장에서 적의 사기를 저하시키거나 저항의지를 약화시키는 데 치중

72) Phillips P. Katz, 앞의 책, pp. 9~13.

하였다.

이에 반해서 공산군 심리전 메시지의 주제는 여성해방, 노동자 해방, 젊은이에게 직업 제공, 토지 재분배, 민족주의 강조 등 다섯 가지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집중되었다. 그것은 6·25전쟁을 사회주의 혁명의 한 과정으로 간주하는 북한측의 입장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예컨대, 자신들의 전쟁수행 명분을 사회주의 혁명의 정당성에서 찾는 심리전에 주력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심리전 주제들은 일관성을 갖고 있는 데, 그것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한반도 상황에 적합하게 재구성했다는 것이다.

‘한국전쟁기 빼라’를 분석한 정용욱⁷³⁾에 따르면, 대상전단을 분석한 결과 유엔군은 투항 권유, 사기 저하와 전의상실 유도, 적에 대한 정치적, 이념적, 도덕적 공격이 주요 주제였다. 이 전단을 주제와 살포대상으로 나누면, 개인의 신상과 이익 내용, 정치·이념공세, 대민 선전·선동 순이었다.

공산군의 전단을 내용과 주제별로 분류하면, 정치적, 도덕적 회유가 140종, 개인 이해관계가 165종, 합계 305종이었다. 북한측 전단도 짧은 문구와 그림을 결합한 선동적 전단이 주종을 이루었지만 선전내용이 풍부한 장문의 전단(305종 중 23종)도 많았다. 유엔군 전단에 비해 논리적 접근 방식을 취했고, 교양과 설득도 강조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측의 전단은 정치적, 이념적, 도덕적 공세, 투항 권유, 사기와 전의상실 유도 순이었다. 이러한 전단내용은 유엔군용 전단과 한국군용 전단에 모두 통용되었으나, 상대적으로 유엔군에 대해서는 유엔군 참전의 부당성, 전쟁의 부정의(不正義)한 성격을 선전하는 정치·이데올로기적 성격이 강조되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군 전단의 또 다른 특징은 유엔군의 내부 모순을 조장하는 내용이

73) 정용욱 교수는 최근 한국역사연구회에 발표한 “6·25전쟁기 미군의 빼라 심리전과 냉전 이데올로기” 논문에서 “한국전쟁기 빼라”(방선주 편)에 실린 6·25전쟁기에 살포한 전단(815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 자료집에 실린 유엔군 전단은 미국 맥아더 장군 문서관과 미육군 군사연구소에 소장한 것이고, 공산군의 전단은 미 국립문서관이 소장한 북한 노획문서 가운데 기밀 해제시킨 것들이다.

많았다는 점이다. 예컨대, 백인과 흑인병사, 유엔군내 유색인종과 미군, 한국군내 장교와 사병간의 내부분열을 조장하는 내용과, 미군의 한국군 멸시를 선전하는 내용 등이다.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유엔군 전단은 압도적인 해·공군력을 앞세운 물량공세에 입각해서 미군의 군사기술, 화력의 우위를 강조했고, 북한군 전단은 북한군의 정치·도덕적 우월성과 미군의 부당한 참전을 강조하면서 정치·사상적으로 승리자라는 입장에서 군·민의 개인적, 집단적 영웅주의를 강조하였다. 유엔군이 정치적, 이념적 주제보다 물질적 보상과 병사 개인의 신상안전을 추구하는 주제위주로 전단을 작성했다면, 공산군은 정치·도덕적 선전에다 개인 이익과 관련한 주제를 배합한다는 원칙을 견지하였다.⁷⁴⁾

이상에서 분석한 심리전 주제는 크게 두 가지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⁷⁵⁾ 첫째, 유엔군의 심리전이 실제 전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전술적 내용에 치중한 반면, 공산군의 심리전 주제는 전쟁기간 동안 일관성 있게 제시되었다. 따라서 유엔군의 심리전은 단기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었으나, 전쟁수행 과정에서 체계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는 어려웠다. 반면에 공산군측의 심리전은 병사들과 후방지원세력들과의 격리를 노리는 효과를 낼 수 있었으나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둘째, 유엔군측의 심리전 주제가 한국적 상황에 맞추어지기보다는 일반적인 심리전 원칙에 따라 작성되었으나, 공산군측의 심리전 주제는 한국적 상황을 잘 이해하고 주제를 선택하여 작성되었다는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실제 내용에 있어서 북한의 심리전 내용이 6·25전쟁의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었던 반면, 유엔군측의 주제는 일반적인 심리전 원칙에 근거하여 전쟁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했다. 따라서 유엔군측 주제는 북한병사들에게 투항을 강요하는 위협적 소구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았다.

74) 방선주 편, 앞의 책, p. 804, p. 813.

75) 황 근, 앞의 책, pp. 186~187.

결과적으로 심리전 주제가 목표대상을 철저하게 파악하여 의미를 이해하도록 해야 하며, 의도된 효과를 노린다는 점에서 본다면 양측의 주제는 상호 장단점을 갖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3) 매 체(media)

1) 전 단

6·25전쟁에서 전단은 심리전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였다. 양측은 라디오와 확성기를 통해 선전전을 전개하였으나, 확성기를 통한 심리전은 전선의 전술심리전에 한정되었고, 라디오 방송의 경우 심리전의 주요 대상국인 북한과 중국 주민들이 라디오 수신기 보유에 한계가 있어서 효과적이지 못했다.

전단은 현재까지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심리전 매체로서 항공기나 기구를 통해 전지역에 메시지를 대량 살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다.⁷⁶⁾ 전단은 유엔군 심리전의 주된 형태였을 뿐만 아니라 매우 중요한 전쟁수단의 하나로 취급되었다. 실제로 유엔군은 전쟁발발 이후 휴전까지 25억장 정도의 전단을 북한지역과 북한군, 중국군에게 살포하였다. 6·25전쟁에 참가한 공산군 연인원 200만명으로 추산한다면 전쟁기간 내내 하루 1장 정도가 장병 개인에게 배달되었음을 의미하고, 또 그것은 한반도 전부를 20번 덮는 수량이었다.⁷⁷⁾

전단 수송은 주로 항공기와 105밀리 곡사포를 이용하여 적진에 살포하였는데, 극동공군의 B-29폭격기에 의해 90%를 투하하였고, 보병 연락기, 공군 T-6, 해군 F-4U, C-47 항공기나 포병포탄을 이용하여 적진 깊숙이 투하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⁷⁸⁾ 이에 반해 공산군의 전단 수송 및 살포는

76) 차배근, 리대룡, 오두범, 조성겸, “실특커뮤니케이션 개론”(서울:나남출판사, 1992), p. 387.

77) 방선주 편, 앞의 책, ii 쪽.

항공기의 부족으로 전선까지 살포하는 데 문제가 많았고, 이에 따라 전단도 상대적으로 효과가 적었다. 대부분의 전단은 포탄과 Bedcheck Charlies 기를 통해 살포되거나 유엔군에 의해 그들의 진지가 점령되면 전단을 놓고 떠났다. 때로는 중국군 병사가 야음을 틈타 유엔군 초소에 포복해 와서 전단을 놓고 가는 방법이 고작이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유엔군은 엄청난 양의 전단을 항공기와 곡사포에 의해 전선지역은 물론 후방까지 살포하여 수천 명의 공산군을 투항시켰고, 특히 안전보장증명서, 귀순조종사 현상금, 사상자 현장사진을 이용한 심리전은 직·간접적으로 큰 효과를 거둔 반면, 공산군측은 수송수단이 여의치 않아 살포량도 적었고, 효과도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2) 라디오

라디오는 신속하고, 광범위한 지역에 비교적싼 값으로 메시지를 전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진 심리전 매체다. 그러나 라디오 매체는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전파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과 방해의 용이성, 일시성(一時性)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특히 라디오의 보급률이 낮은 지역에서는 효과가 적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고 있다.

6·25전쟁시 유엔군의 라디오는 전략적 혹은 결속강화 매체로서 사용하였다. 1951년에서 1952년 사이에 라디오방송은 심리전반(PWS)에 의해 통제되었으며, 그 이후에는 제1라디오 방송 및 전단중대에 의하여 운용되었다. 이 부대는 서울, 대구, 부산의 KBS 방송국 및 도쿄 방송국을 통하여 심리전 활동을 전개하였고, KBS의 12개 전국 네트워크를 통하여 방송심리전을 수행하였다.⁷⁹⁾

78) 포병탄을 이용한 전단살포는 낙동강 방어선 전투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는데, 105밀리 야포는 M-84탄의 산탄을 제거하고 전단 400매를 삽입하여 작전을 수행하였다. 100피트 상공에서 폭발된 폭탄은 50~100야드까지 살포되었다. 포병포탄을 이용한 전단살포는 적을 투항시키는 유용한 수단이다(Petee, 앞의 책, p. 21).

유엔군의 심리전 활동은 주로 야전에서서의 전술심리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전단이나 확성기 방송을 이용한 심리전 수행이 많았다. 즉, 유엔군측의 심리전은 수용자가 사용가능한 매체에 의존하였다.⁸⁰⁾ 반면에 공산군은 모든 매체를 국가가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심리전 매체전략이 가능했다. 북한은 모든 역량과 수단을 전쟁승리에 목표를 두고 신속성과 기동성을 보장하면서 출판보도사업을 정상화하는 것이 전쟁에 임하는 매스미디어 임무임을 주지시켰다.⁸¹⁾ 이러한 정책목표 아래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에 보도부를 만들어 모든 매체를 통제하였다.

특히 북한은 라디오를 통해 전쟁계획을 위장하기 위하여 선전을 강화하였다. 남침 일주일전에 라디오평양은 한반도 전역에 걸쳐 총선거 실시를 요구하는 방송을 했는가 하면 연합군과 남한의 정당에 38선 회담을 제안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전쟁 후반기에는 휴전협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유엔군이 세균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을 라디오와 신문을 통해 집요하게 선전했고, 제공권을 상실했음에도 공군의 승리를 자랑하는 등 라디오평양은 공산주의의 성공을 전달하는 선전도구 역할을 충실히 했던 것이다.

라디오 매체를 통한 심리전은 전술심리전에 치중했던 유엔군 보다 전략심리전에 주력한 공산군의 이념공세 차원의 선전전이 보다 큰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3) 확성기

확성기는 적시에 특정대상에 맞게 제작된 메시지를 전선에서 근접하여

79) Paul M. A. Linebarger, "Warfare Psychologically"(Washington Combat Forces Press, 1954), p. 304.

80) 유엔군이 라디오의 사용을 통제한 이유는 당시 남한의 라디오 보급률이 1950년 12월 약 7만대(1949. 3월의 절반 수준)였고, 북한은 3만대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효과가 저조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81) 김영주, 이범수, "북한언론의 이론과 실제"(서울:나남출판사, 1991), pp. 180~188.

전투지원에 이용한다. 6·25전쟁에서 확성기 운용은 항공기에 탑재하여 전장의 적군에게 직접 항복을 권유하거나 다른 심리전 메시지를 방송하는 방법과 지프차와 전차에 확성기를 탑재하여 전술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확성기 방송의 이점은 전장에서 적에게 큰 소리로 메시지를 전하고 향수어린 음악을 들려줄 수 있으며, 중장비와 전차의 이동도 감출 수 있다는 것이다.

유엔군은 지상 확성기 방송의 효과분석에서 1950년에 418명의 포로를 획득하였고, 제1기병사단은 1950년에 확성기 1개당 평균 300명 정도를 항복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공중 확성기(C-47기)로는 동년 적군 300명과 차량을 포획하였고 이듬해에는 1,800명의 중국군을 귀순시키는 전과를 올렸다. 이를 포함하여 전쟁기간 동안에는 300개 이상의 공산군부대가 수대의 군수 트럭과 함께 항복한 것이다. 이는 전술심리전에서 확성기 방송의 위력을 입증한 것이다. 반면에 공산군은 진지전 기간에 전선이 잠잠해지면 장시간 음악과 강연을 방송하였는데, 음악의 대부분은 향수를 자극했고, 강연내용은 유엔군의 철수를 주장하면서 부대이동이 비밀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새로 전입·배치된 유엔군을 환영한다는 선전 등에 불과하였다.

확성기 방송은 유엔군이 전술적 차원에서 큰 효과를 거둔 반면, 공산군은 전선지역에서 음악과 강연 등의 방송 외에는 활동이 미약하였다. 특히 확성기는 지상에 노출되어 있어 적의 화력에 매우 취약한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었다

(4) 수용자(audience)

일반적으로 심리전에서 목표 수용자는 4개의 대상으로 나뉘어진다. 즉, 적의 통치계층, 지도자 그룹, 불특정 대상, 제한된 소수의 목표 수용자로 나누어 볼 수 있다.⁸²⁾ 이러한 심리전의 수용자들은 일반적으로 커뮤니케이

선 수용자들과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 우선 심리전 수용자들은 심리전 주체에 대해 반감이나 거부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심리전 내용 역시 수용자의 기존 태도로부터 크게 상충되어서는 안된다. 둘째, 심리전 매체를 통한 전달통로가 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심리전이 목표군중에 도달하기 위한 채널에 있어서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심리전 내용은 수용자로 하여금 작은 태도변화를 요하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되어야만 한다.

6·25전쟁에서 심리전 수용자 역시 상대방의 지도층에서부터 전장에서의 병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예컨대, “왜 중국과 소련을 위하여 죽어야 하는가”와 같은 내용은 6·25전쟁에서 북한 병사들과 북한의 지도층과의 이질감을 야기하기 위한 효과를 노린 것이다. 실례로 1951년 2월 중국군의 공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 8군 심리전반(PWS)에서 중국군 주력부대의 사령관, 3개 사단장, 연대장의 2/3, 장병의 75%가 국부군 출신임을 간파하고, 중국군 사령관을 대상으로 중국 전쟁지도층이 국부군 출신을 전쟁소모품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심리작전을 수행한 결과, 지휘관은 전원 문책되고 부대전체가 전장에서 교체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바로 전쟁지도층과 병사들 간의 불신감을 조장하기 위한 심리전이 성공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⁸³⁾

(5) 효과분석(effect)

심리전이 실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효과를 측정하기란 쉽지가 않다. 그러나 최근 연구결과를 보면, 일부 특정한 경우 심리전은 뚜렷한 효과를 보인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⁸⁴⁾ 그 대표적인 것이 심리

82) Paul M. A. Linebarger, op. cit., p. 51.

83) 공보부 역, “심리전의 매체, 방법 및 기술”, 1963, pp. 187~190.

84) 권 근, 앞의 책, pp. 195~196.

전 고정화(Psychological crystallization)로서 수용자 개인의 심리 속에 잠재되어 있던 욕구를 강력하고 명확하게 하는 데 효과가 있다. 예컨대, 대다수의 병사들이 죽음에 대한 공포와 고향에 대한 향수와 같은 원초적인 본능이 이데올로기나 전장에서의 애국심 등과 같은 억압요소에 의해 억제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억압된 성향은 적대 수용자라 하더라도 심리전 메시지에 의하여 심리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엔군이 수행한 전단과 확성기방송의 효과에 대한 증거는 전쟁포로들이 진술한 내용이고, 라디오 방송의 효과에 대한 증거는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자 및 관리자, 한국의 여러 관련자들이 진술한 증언이다. 따라서 전쟁포로와 심리전 관련자들이 진술한 내용은 심리전의 효과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원천이다. 피테(Petree)의 전쟁포로 심문결과에 따르면,⁸⁵⁾ 1950년 9월 전체 포로 2,728명 중에 904명(33.1%)이 심리전에 영향을 받았고, 특히 유엔군이 인천상륙작전 이후, 567명의 포로를 획득하였는데 그 중 304명(53.6%)이 심리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산군이 유엔군의 전단과 방송 등을 보거나 듣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포로가 된 경우가 33.1%로 의미있는 심리전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제9군단의 경우 같은 해 1,737명이 포로 중에 742명(42.7%)이 전단을 보았으며, 117명(6.7%)이 확성기의 방송내용을 들었던 것으로 나타났다.⁸⁶⁾ 특히 유엔군의 ‘안전보장증명서’ 전단은 살포 후 공산군 수천 명이 투항해 왔고, ‘사상자 현장사진’ 전단은 심리전 효과측정 결과 중국군 수백 명이 투항하였다. ‘귀순조종사 현상금’ 전단도 공중전에서 다대한 성과를 거두었다. 당시 미군 F-86기는 3대가 격추된 반면에 미그기는 165대가 격추되어 55:1의 비율이었다. 이는 실질적인 전투무기 이상의 다대한 성과였다.

라디오 방송의 효과는 첫째, 누가 라디오 방송을 얼마나 들었느냐? 방송을 들었던 사람에게 미친 영향이 무엇인가? 둘째, 라디오 방송을 수신할

85) Petree, 앞의 책, pp. 49~50.

86) Petree, 위의 책, p. 49.

수 있게 하는 중계소 시설상태를 조사함으로써 분석할 수 있다. 당시 라디오 방송국에 의하면 6·25전쟁 초기 적 치하의 서울에는 3만대의 수신기가 남아있었고, 그 중 7,000~8,000대는 부산과 대구에 있는 방송국과 도쿄라디오 방송을 청취할 수 있었다. 1950년 12월 남한에는 약 7만대의 수신기가 있었으며, 이것은 1949년 3월의 절반수준이었다. 1950년 당시 북한에는 수신기가 3만대 정도였고,⁸⁷⁾ 남한의 수신기 절반 이상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1·4후퇴로 인해 라디오 청취는 거의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라디오의 효과는 심리전을 수행한 만큼의 효과는 거두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확성기 방송은 유엔군이 전술심리전으로 수행하여 큰 효과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1950년 지상 확성기에 의해 500여 명이 항복했으며, 확성기 1대당 공산군 300명 정도가 항복을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중 확성기도 같은 해 적 300명과 트럭 1대를 포획하였고, 미 제1 대적선전대 제1확성기 중대는 1951년 1,800명의 공산군을 전선에서 귀순시키는 효과를 거두었다.

공산군은 전반적으로 전락심리전에서 유엔군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했으나, 그 효과분석에 대한 통계화된 자료는 절대 부족하다. 어떠한 북한군은 사전 치밀한 계획 하에 전쟁 초기 남한 점령지역의 모든 언론을 장악하고, 공산주의의 우월성과 사상교육을 강화하였고, 라디오를 선전 도구화 하여 선전전에 전력을 다하였다. 휴전협상 기간에는 협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세군심리전 선전을 공세적으로 펼쳐 세계 여론을 조작하여 휴전협상에서 유엔군을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간 것은 심리전의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또한 적공조가 야간에 은밀하게 침투하여 아군의 부대 주변에 아군 투항자의 성명을 기재한 흑색전단을 살포하여 내부 갈등과 혼란을 조장하였고,⁸⁸⁾ 중국군은 중세 칭기즈칸(Chingiz Khan)의 몽골군이 활용한 공포심리전을 모방하여⁸⁹⁾ 수행함으로써 유엔군이 전선을 유지하는

87) 1945년 당시 북한에는 약 8만대의 수신기가 있었으나, 1946년 초기 공산주의자들은 반공산주의 방송청취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신기를 몰수하였다

88) 이윤규, 앞의 논문, p. 87.

데 큰 어려움을 주었다. 이상과 같이 6·25전쟁은 독특한 전쟁양상에 따라 심리전이 치열하게 전개되었으며, 양측은 전략·전술·선무심리전을 전쟁 상황에 따라 각기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전력을 다했다고 본다.

5. 결 론

이상과 같이 심리전의 운용실태에 대한 분석결과를 평가해 보면, 첫째, 심리전의 주체와 조직 면에서는 유엔군이 북한군보다 체계적인 조직이 취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유엔군은 전쟁 초기 심리전 조직이 정비되지 못했고, 1950년 인천상륙작전 이후 미 육군성 지침에 따라 미 8군 극동군사령부 G-3 심리전반이 군사작전 지원차원의 전술심리전에 국한하여 수행한 반면, 공산군은 전쟁이전부터 국가적 차원의 조선인민군총사령부 정치국과 중국인민군 총사령부가 적공사업을 총괄하고, 적공조를 말단 소대까지 배치하여 선전전략과 지침에 의해 조직적으로 수행되었다.

둘째, 심리전 정책과 주제는 유엔군이 심리전 일반원칙에 입각하여 정치적, 이념적 주제보다 물질적 보상과 개인의 신상안전에 중점을 둔데 반해, 공산군은 그들이 의도한 사회복지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사회주의 혁명의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정치적, 도덕적 선전에 주력하면서 개인 이익에 관련한 주제를 배합한다는 원칙을 견지하였다. 따라서 전장의 환경과 여건에 맞게 주제를 선택해야 효과를 극대화 한다는 점에서 보면, 전술적인 면에서는 유엔군이, 전략적인 면에서는 공산군이 보다 적합한 주제를 선정하여 심리

89) 칭기즈칸은 작전을 계획함에 있어서 첩자를 활용하여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몽골군의 위력과 용감성, 난폭성을 과대선전 하는 이야기를 퍼뜨리게 하는 등 적이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주저하지 않았다. 칭기즈칸은 적으로 하여금 공포에 떨게 하는 수단으로 적의 첩자까지 역이용하여 자기네 힘을 과시하였다(칭기즈칸, 李圭植 역, 서울: 영림사, 1973, p. 286).

전을 수행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심리전 매체 선택은 유엔군이 전술심리전의 전단과 확성기를 효과적으로 이용한 반면, 공산군은 라디오와 신문매체를 중심으로 이념을 강조한 선전전에 치중하였다. 당시 미디어 환경을 고려하면 유엔군의 심리전 매체 선택은 공산군의 매체 선택보다 심리전 효과면에서 성공적이었다.

넷째, 심리전 효과면에서는 심리전 논조를 인간의 본성에 근간을 두고 수행한 유엔군이 날조된 정치·이념을 회색선전으로 일관한 공산군보다 전반적으로 실질적인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심리전 논조가 인본주의와 진실을 바탕으로 수행될 때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이념전쟁 양상으로 전개된 6·25전쟁은 전쟁 주체자들에게 전쟁 승패보다 이념과 도덕적인 측면이 더 강조되면서 이데올로기 전쟁을 철저하게 준비한 공산군측이 새로운 미디어를 활용하여 조직적인 선전전을 펼쳤고, 유엔군은 전쟁 초기 선전전에 고전했지만, 열전상황이 전개되면서 전단과 확성기를 이용한 전술심리전에서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휴전협상 과정에서 주도권을 놓고 전개된 심리전에서 유엔군은 세균전 공세에는 고전했지만, 핵사용 위협과 인도주의에 입각한 포로송환 심리전은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었던 요인으로 볼 수 있다.

6·25전쟁이 휴전된 지 반세기가 지난 지금 한반도 안보정세에 따른 전장 환경은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최근 현대전인 코소보전과 이라크전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첨단과학기술과 미디어의 획기적 발전은 전쟁의 패러다임을 급격하게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심리전의 역할도 크게 확대시켰다. 따라서 한반도에서의 미래전 양상도 이데올로기전쟁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며, 심리전도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될 것을 예고하고 있다. 21세기의 전쟁이 정보전, Cyber전 등의 새로운 형태로 전개된다고 전제할 때, 미래의 심리전 양상은 미디어 매체의 발달로 Cyber전 성격의 인터넷망을 활용한 심리전과 군사력 이외의 정치·경제·사상전 등의 새로운 형태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6·25전쟁기 심리전 분석을 통해 도출한 지혜와 교훈을 국방 심리전에 지혜롭게 적용함과 아울러 21세기 미래전에 대비하여 철저한 전장환경 분석에 따른 새로운 심리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원고투고일 : 2004. 10. 20, 심사완료일 : 2004. 11. 10)

주제어 : 6·25전쟁, 전략심리전, 전술심리전, 전단, 확장기

K C I

<ABSTRACT>

Analysis on the Employment Status of the Psychological Warfare Organizations during the Korean War

Kim, Jong-suk

This study intends to do an in-depth research of the Psychological Warfare (PsyWar) Organizations operated by the UN Forces and the Communist Forces, compare the two forces and analyze and evaluate them. The summary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concerning independence and organization, the UN Forces had an insufficient systematic organization in comparison to the Communists. the UN Forces operated their PsyWar Organizations under the command of the EUSAK FEC's G-3 PsyWar Division. The operations were limited only to the command of the Tactical PsyWar. On the other hand, the Communists operated their organizations on a national level. The Political Department of the North Korean People's Army (NKPA) and the General Headquarters of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took command of the Psychological Warfare. They placed trained men in all of their forces, down to the smallest units and operated organizationally under propaganda tactics.

Second, concerning the PsyWar politics and motifs, the UN Forces based its principles on the general rules of the PsyWar and therefore instead of political or ideological motifs, the UN Forces put its focus on physical compensations and personal safety of each individual. In comparison, the Communists put all its energy into justifying the Marxist Revolution and put forth a viewpoint that stated as a fundamental rule that motifs related

to personal profit should be combined with political and moral propaganda.

Third, in the case of selection of medium for the PsyWar, the UN Forces were able to effectively use loudspeakers and leaflets on the Tactical PsyWar level. In contrast, the Communists centered around the radio as their core medium and put their emphasis on ideology.

Fourth, concerning the effect, we judge that the UN Forces had a better effect. The operated putting their basis for the PsyWar on human instinct. However, the Communists were consistent in their propaganda of fabricated politics and ideologies. Therefore, in terms of surrender and defection we judge that the UN Forces had a bigger effect.

In the future wars, we predict that instead of the ideology wars we are fighting now, there will be a new form of the PsyWar. Supposing that war in the 21st Century will be the Information War, the System Integration War, the Cyber War, and various other new types of war, the PsyWar is also taking on a new aspect as well. Due to revolutionary development in mass media, the PsyWar that utilizes the Internet, and not only physical wars by army strength but also political, economical, and ideological wars are the new forms that the PsyWar is changing into. Therefore, our forces should be able to wisely apply the lessons that we can obtain from the PsyWar during the Korean War to our present the PsyWar. Along with this, we should also be able to provide our army with measures that can address the new aspects that the PsyWar is taking on.

Key Words: Korean War, Strategic Psychological Warfare, Tactical Psychological Warfare, Leaflet, Loudspeaker